

당신의 농장은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까?



□ 취재 / 권동원 기자

1~2개월 닭농사를 잘 하려면 때를 잘 맞추어야 하고, 1년 닭농사는 사양관리를 잘 해야 한다. 5년 닭농사를 잘 하려면 질병에 조심해야 하고, 10년 닭농사는 불조심에 있다.

기르던 닭이 병에 걸려 폐사해 문었을 때 닭이 없으니 뭘 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농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닭은 물론 계사도 불타 없어지고 시커먼 재만 남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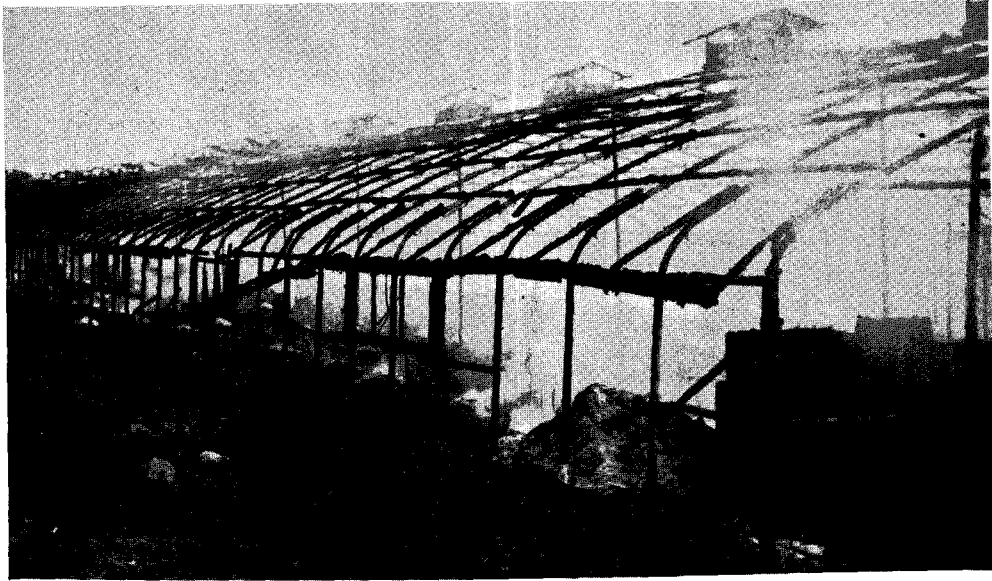
50평짜리 계사 17동을 가지고 전주시 송천동에서 육계업을 하고 있는 백문진씨.

몇달째 육계시세가 하늘 높은 곳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어 10여년 육계업을 해오면서 그동안 찌들었던 마음 풀고 육계시세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계사에 불이나 계사 17동중 15동이 완전

히 잿더미가 되어 버렸다. 더구나 애지중지 키워 거의 자라준 닭들까지도 한마리 남김없이 시커멓게 타 죽어 버렸다. 한쪽 모퉁이에 위치한 빈 계사 2동과 관리인이 쓰던 가건물만 덜렁 남아 있었다. 불탄계사는 고열에 못견뎌던 파이프만 앙상하게 구부러져 널려 있었고, 죽은 닭들도 방혈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

화재소식을 듣고 뒤늦게 찾아



간 기자는 얼마나 침통한 마음으로 실의에 빠져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양계협회 전북지부 북전주협의회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곳에서 첫 대면을 한 순간 “불나 흘러당 다까먹었어도 아직은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려운 일 당했다고 이곳저곳에서 물심양면으로 너무 많이 도와 주니 부담되고 미안해서 못돌아댕기겠습니다. 두번만 불냈다가는 너무 큰 신세질 것 같아 다시는 불 안 내겠습니다. 처음 불냈을 때 황량하던 마음 이제는 훈훈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미소띠티 얼굴을 보여주어 강인함이 엿보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연탄난로 가장 위험

화재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난로 과열인듯 추측만 하고 있었다. 삼구삼탄 연탄난로를 때고 있었고 30일령된 닭을 성계사로 옮기기 위해 계사바닥에 잘마른 깔짚을 깔아놓아 난로에서 벗짚으로 불이 옮겨 붙었을 확률이 높다고 말하였다.

농장은 10년정도된 계사들이어서 3년에 한번꼴로 비닐과 보온덮개를 덮어주어 보온덮개가 세겍으로 덮여 있었다. 보온덮개는 화학성 인화물질에 가까와 불에 민감하고 화력이 어느 물질보다 좋아 화재에는 속수무책이라 평하였다. 또한 계사와 계사간의 간격은 1m를 조금 넘어보일 정도로 밀집된 일반적인 계사배치였다.

화재당시 계속된 가뭄으로 보온덮개는 잘 말라 있었고 건조한 날씨에 비교적 센바람이 부는 등 불행하게도 날씨마저 불이 번지기에 이상적이어서 중간에 위치한 계사에 불이 붙자 삼시간에 전계사에 번져 20여분만에 전계사는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 중의 하나인 화재는 일단 불이 번지면 되돌릴 수 없는 실정이다. 양계장에서의 화재원인은 난로과열과 취급부주의에 의한 경우와 전기누전으로 인한 경우이다.

겨울철에 계사내의 주된 열공급은 연탄난로가 맡고 있다. 계사에 병아리 입추준비할 때 잘마른 깔짚을 깔아주어 1주일 정도는 높은 실내온도에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계사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 난로를 강하게 때게 되며 연탄난로의 과열이 쉽게 이루어져 어지럽게 깔려 있는 깔짚에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다. 연탄난로의 과열은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난로밑부분의 연탄재 받침이 떨어지게 되면 공기의 흡입이 과다하게 되어 심한 난로과열에 직결될 우려가 크다.



관리소홀에서 화재발생

연탄난로의 취급부주의에서 올 수 있는 화재는 연탄재를 옮길 때 불뚱이 계사바닥에 떨어져 불이 날 우려와 내다버린 연탄재가 문제가 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취급부주의에 의한 난로나 연탄재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지만 난로연통이 과열되어 연통에서 보온덮개로 불이 옮겨붙은 예도 있다.

석유난로 역시 취급부주의가 원인이 되고 있다. 석유난로도 과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처음 난로를 켤 때 강하게 켜는 난로가 가열된 후에도 불을 줄여주지 않게 되면 난로가 굉장히 과열된다. 석유난로에 의한 화재도 연탄난로 처럼 취급부주의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사고는 적은 편이다. 계사열 공급원중 가스유추기나 석유열풍기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이다.

계사온도를 높게 유지해야 하고 병아리로부터 배설물과 호흡

량이 적은 입추부터 1주일 정도는 난로가 과열되기 쉽고 깔짚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시설개선 시급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는 낡은 계사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 정상적인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피막이 얇은 전선을 사용하고 있어 항상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수반하고 있고 특히 먼지가 쌓인 전기줄에 습기가 차면 발화위험이 크다. 겨울철 1주령에서 1개월령의 닭을 사육하는 경우 계분과 닭의 호흡으로 인해 계사내 습도가 높아진 반면 보온관리를 위해 계사를 밀폐시키게 되면 천정, 벽 등에 물방울이 맺히게 된다. 천정에 맺힌 물방울이 전기선을 타고 소켓으로 흘러 들어가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도 높아진다.

계사의 전기시설을 외선 두가닥으로 설치하며 전압에 견딜 수

있는 설계표준규격에 의한 시공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육계업이 투기성 사업으로 인식되어 사업의 연속성 보다는 한탕주의 심리가 팽배해져 시설측면에는 도외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전계사를 꾸미기 보다는 파이프에 보온덮개를 한 파이프하우스 간이계사가 우리나라 육계사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또한 계사와 계사간격은 4~5m를 떼어 주어야 화재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화재로부터 피해를 줄이려면 먼저 전기나 난로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나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전기 시설을 규정대로 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의 현대화가 자연스러운 화재 예방의 길이라 말하고 있다.

예견치 못한 화재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권하고 있다. **양지**